

니트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에 관한 연구 - 2010년 이후 컬렉션 중심으로 -

김 소 현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빈번하게 논의되어 온 20세기 후반 패션의 전환기인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네 가지 특성 스트리트 룩, 페미니즘 룩, 레트로 룩, 에스닉 룩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 니트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니트 패션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스트리트 룩은 하위문화스타일에서 발전된 룩으로 실용성을 강조한 미래적인 니트 패션으로 제시되며,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과 무채색과 원색과의 액센트 배색이 두드러졌다. 둘째, 레트로 룩은 과거의 현존을 보여주는 혼합방식과 추억과 회상이라는 감성의 전달이 주된 목적으로 자유로운 캐주얼과 빈티지 스타일의 믹스, 융합, 복고적인 패턴의 보헤미안스타일로 다소 빛바랜 듯한 톤의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한 수공예 감각의 에스닉 룩은 원시성이나 인간본능에 대한 관심을 내포하고, 색상은 강하고 자극적인 배색으로 활기차고 원시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 룩은 니트 패션의 유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특성으로 기능적이면서 은유적이고, 관능적이다. 이는 곡선미가 드러나는 드레이프성의 니트 패션으로 단색 위주와 스프라이트, 다양한 패턴 등으로 표현되었다. 니트 패션의 특성과 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으로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시대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니트 패션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꾸준한 성장과 기능성, 예술성을 갖춘 하나의 장르로서 니트 패션의 시지각적인 자료로서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니트 패션, 포스트모더니즘, 스트리트 룩, 레트로 룩, 에스닉 룩, 페미니즘 룩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현대 디자인사에 있어 1980년대 초부터 국내에 처음 소개되어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과 예술, 건축, 복식 등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온 매우 포괄적인 예술사조의 전환기이자 새로운 디자인 개념이다. 1970년대 이후 기존의 모더니즘과 상반되는 새로운 미의식으로 과거의 모드를 현대적 감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의 혼합과 절충, 감성적, 토속적, 해체적으로 재해석되어 다양한 미학적 패러다임으로 창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사회의 라이프스타일이 급변하게 다양해지고 활동성이 더욱 중요하게 됨에 따라 패션에 대한 욕구는 기능성과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추구되어 발전하였으며 조형적인 자유로움 등의 특성인 니트 소재들로 창의적인 디자인 감각과 기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 니트 패션은 보온용, 방한용 의류에서 벗어나 예술적 표현성을 주목받아 의상 디자인의 표현영역을 넓히며, 편안한 착용감과 실용성, 다양한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필수 품목으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으며 패션시장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빈번하게 논의되어 온 20세기 후반 패션의 전환기인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특성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 니트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문화적 배경의 시대정신과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니트 패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21세기 패션의 흐름에 적합한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과 기능성, 예술성을 갖춘 하나의 장르로서 니트 패션의 시지각적인 자료를 모색하여 산업 전

반에 걸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니트 패션의 개념 및 변천과 일반적인 특성 및 디자인 요소를 살펴보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특징과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미 논의되어 온 1980년대부터 2000대까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선행연구를 파악한 후 특성을 도출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스타일로 스트리트 룩, 레트로 룩, 에스닉 룩, 페미니즘 룩 등 네 가지로 요약하여 분류할 수 있었다. 이는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2010년 이후의 컬렉션에서 선보인 니트 패션 디자인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2010년 F/W부터 2012년 F/W까지의 니트 패션을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지와 패션전문사이트 퍼스트 뷰 코리아(<http://www.firstviewkorea.com>)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여 니트 패션의 미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니트 패션의 개념 및 특징

1) 니트 패션의 개념 및 특성

니트의 어원은 고대 산스크리트어의 'nahyti'로부터 파생된 색슨어의 '니탄(cnyttan)'에서 유래하였으며, '손에 의해 짜여진 직물'이라는 의미가 있다.1) 니트는 실의 고리(loop)를 만들고 이 고리에 실을 걸어서 새 고리를 만드는 것을 되풀이하여 만든 피륙을 말하며2), 니트란 니팅(knitting)과 관련된 용어로 메리야스, 편성물, 편직 등 여러 말들로 통용되고 있다.3) 실의 형태로 된 모든 재료를 사

용하여 용구나 뜨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조직이 형성되는 니트 패션은 뜨는 것으로 만들어진 옷의 총칭으로 최근에는 일반적인 편성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니트의 기원은 직물보다는 그 이전으로 오래전부터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수렵용이나 어로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되며, 최초의 것으로 시리아 듀라 지역에서 발견된 세 조각의 편물은 모사로 배색하여 256년경에 짜여진 것으로 조직을 보면 겹뜨기와 안뜨기로 짜 돌려뜨기를 하였으며 문양은 안뜨기 바탕에 코 줄임과 늘림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평편조각으로 고고학상의 발굴 작업 때에 발견되었다.⁴⁾

의복에 사용된 것으로 현재 가장 오래된 것은 독일 레이시스터(Leicester)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프라테스 지역에서 발견된 수편물 조각과 이집트의 안티노폴리스(Antinoópolis) 무덤에서 발견된 5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매듭없는 샌들용의 짧은 양말이다. 현재와 같은 뜨개바늘로 뜨는 수편물은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4~15세기에 피렌체나 파리에 니트 길드가 결정될 때까지 보급되었다.⁵⁾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니트 웨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4세기경 북유럽 항구의 여인들이 어부용 작업복으로 방한용 니트 스웨터를 만든 것에서 비롯된다.⁶⁾ 16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전성기를 맞은 니트의 주요 거래 품목은 속옷, 장갑, 소매 등으로 특히 실크 스타킹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부의 상징이자 권력 및 계급을 상징되었다. 니트웨어의 수요가 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산업 혁명기 전후에 수편기가 발명되면서 대량 니트 체제가 가능해졌고, 최초의 편기로는 1589년 영국의 윌리엄 리(William Lee)목사의 양말기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는 수편물사의 실적을 우려하여 이 기계를 외면하였고, 윌리엄 리는 이 기계를 가지고 프랑스에 건너가 헨리 4세의 지원을 받아 1590년에 프랑스 루앙(Rouen)에 세계 최초의 기계

식 니트 공장을 세웠다. 이러한 니트 기계의 출현으로 손으로 짜던 니트 공업은 유럽의 외진 지역을 제외하고 쇠퇴하기 시작하였지만 니트 산업에 혁명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1900년대 후반까지 현대적 기계 편기의 기초가 되었다.⁷⁾

니트 기계의 확산과 인쇄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1889년에는 런던에서 ‘일반 편물 교본’이 출판되었고, 여성 잡지에 편물 무늬가 게재되는 등 편물은 중산층의 여가 생활로써 전수되어졌다. 이 당시 여가를 가진 여성들의 층이 증가됨에 따라 레이스 뜨기의 유행과 함께 아주 섬세한 바늘공예(needle craft)가 다시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내의 뿐만 아니라 외출복까지도 뜨게 되어 1990년대 이후 니트 기법에 있어 다양한 소재와 혼합 기법 및 오브제의 사용 등으로 그 기법의 표현이 확대되었다. 1920년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스포츠에 대한 열풍으로 케주얼 웨어의 수요가 증가되면서⁸⁾, 스타일에 있어 스포티, 심플, 모던한 디자인 경향으로 심플한 박시(boxy)라인의 실루엣이 주를 이루었고, 기하학적인 문양과 저지를 패셔너블한 니트의 소재로 응용하였다. 또한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은 주로 남성 내의류와 노동복의 재료로 사용하던 저지를 기능성과 실용주의 패션으로 니트 여성복을 일반화 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930년대는 엘자 스키아패렐리(Elsa Schiaparelli)는 파리에서 손뜨개로 만든 착시를 이용한 스카프를 두른 모양의 니트를 발표하여 대유행을 하였고⁹⁾, 1936년 스위스에서 파사프(Passap)의 수편기계가 발명되어 값싸고 세탁이 용이한 인조섬유의 개발로 다양한 가격과 스타일의 기성복이 대량 생산되었다.

1940년대는 편직기 및 전자공업의 발달과 수편기 산업의 발달 및 고무편기의 발명으로 니트의 대중화를 이루었고, 1950년대 중반부터 미소니(Missoni), 베네통(Benetton), 스테파넬(Stepanel) 등 본격적인 니트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의 등장으로

다양한 종류의 캐주얼 니트웨어와 함께 니트 고유의 특성인 육체의 곡선미를 살린 고급패션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는 니트의 영 패션화와 아트화의 시기로서 진 패션과 함께 젊은 층에서 선호되어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기발한 디자인이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짧고 발랄해 보이는 스타일로 유행하였고¹⁰⁾, 기계 니팅으로 위촉되었던 핸드 니팅이 구미의 섬유예술가들에 의해 미술의상의 한 영역으로 발달하기도 하였다.¹¹⁾

1970년대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과 여성운동의 확대로 히피풍과 원원풍의 두겹고 거칠게 짠 듯한 니트웨어가 유행하였으며, 니트웨어의 유니섹스화와 캐주얼화 등이 대중화되면서 1975년의 이트마전에 서독의 스티븐스가 황편기에 의한 컴퓨터 타입의 ‘Anv’를 발표함으로써 컴퓨터 니트시대가 본격화되었다.¹²⁾ 1980년대는 모든 과거 양식을 혼합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민속풍의 자카드 무늬 등의 응용으로 직물과 혼동되기도 하였고, 니트의 기술 혁신 및 문양의 전문화를 이루었다. 1990년대는 세기말적인 혼돈의 사회경향이 패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에콜로지, 리사이클, 내추럴리즘 등의 다양한 테마들이 동시에 나타나 니트의 표현 영역을 넓혀가며 다양한 변화와 테크닉의 복합성으로 독특한 미적효과를 나타냈다.¹³⁾

우리나라에 니트가 전해진 것은 조선 후기로 고종 7-8년경에 선교사들에 의해 양말 짜는 기술이 전해진 것이 처음이며, 양말은 버선에 비해 간편하고 실용적이며 새로운 것이어서 급속히 대중화되었다.¹⁴⁾ 1919년에는 개성 송도 고등보통학교 실습실에 미국제 자동 양말기계를 도입하여 수공업에서 기계 산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1933년에 평양에 속옷 뜨기 공장이 처음 설립되었으며, 점차 전국에 양말과 메리야스 공장이 등장하였고, 1947년부터 환편기, 양면 편성기, 양말기 등의 국산화가 실현되어 우리나라 니트 공업의 오늘을 이

룬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¹⁵⁾ 1956년부터 수입 원모를 가공하여 편물용 털실을 생산하자 수편물은 활발한 발전을 이루었고¹⁶⁾, 1963년부터 수출이 시작되면서 니트 제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70년 초에는 아일랜드 수녀들에 의해 아랑무늬가 전화되어 오늘날 한람수직의 기원이 되었고, 1970년 말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은 제품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니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발전을 이루며,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니트 업계는 제품의 고급화, 소재의 다양화 및 패션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⁷⁾

니트 패션의 개념 및 조형미를 문헌연구를 통해 요약하면 니트란 니팅(knitting)과 관련된 용어로 메리야스, 편성물, 편직 등 여러 말들로 통용되며, 니트 패션은 뜨는 것으로 만들어진 옷의 총칭으로 최근에는 일반적인 편성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1990년대 이후 니트 기법에 있어 다양한 소재와 혼합 기법 및 오브제의 사용 등으로 그 기법의 표현이 확대되었고, 1980년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민속풍의 자카드 무늬 등의 응용으로 직물과 혼동되며 니트의 기술 혁신 및 문양의 전문화를 이루었고, 1990년대는 세기말적인 혼돈의 사회경향이 패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에콜로지, 레트로, 에스닉 등의 다양한 테마들이 동시에 나타나 니트의 표현 영역을 넓혀가며 다양한 변화와 테크닉의 복합성으로 독특한 미적효과를 나타냈다.

2) 니트 패션의 특성 및 디자인 요소

니트 패션은 원사, 조직의 종류, 밀도의 변화, 사용하는 기계, 게이지, 염색 후 가공, 실루엣, 원사, 장식 및 트리밍 기법 등의 방법에 따라 니트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니트 패션이 지닌 장점을 개발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니트의 장점은 다른 직물에 비해 자유도가 커서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그 방향이 변형되고 회복되는 신축성, 인체의 체온을 보호하고 울과 울 사이 공기함유량이 많아 보온성을 높여 흡수성, 통기성이 좋은 다공성, 신축성이 크고 부드러우면서 인체의 곡선미를 맵시 있게 돋보이도록 하는 드레이프성, 몸의 사이즈에 맞춰 짤 폭을 증감하고 성형편을 할 수 있는 성형성 등이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인락성, 내마찰성이 약하여 보풀이 생기고, 런(Run), 컬 업(Curl up), 올풀림 등의 현상이 있다. 특히 니트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니트 조직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런(Run)현상은 내구력이 좋지 못한 취약한 단점이지만 디자인 측면에서는 니트의 다양한 공예적인 조직변화를 주는데 활용할 수 있다.¹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니트의 개념과 특성에 의해 니트 소재로 구성된 디자인 특성 중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과 실루엣, 색상과 문양, 장식 및 표현기법으로 분류하여 니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표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복디자인에서 선은 형태를 만드는 과정으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실루엣이라 할 수 있으며, 니트 패션에서도 직물류 패션과 같이 실루엣을 형성하고 실루엣안의 다양한 구성성을 통하여 디자인을 표현한다. 색은 시각에 의해 시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른 디자인 요소에 비해 즉각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부분이다. 또한 직물 자체가 갖는 문양의 두 가지 이상의 색채가 갖는 조화, 배색 또한 의복의 디자인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니트 패션에 있어 장식 및 표현기법은 편성 후 소재의 표면을 장식하는 기법으로 원사, 조직의 다음의 단계에서 구성되며, 전체 디자인의 효과에 큰 영향을 준다. 장식기법으로 비딩, 자수, 오브제, 프린팅, 애플리케이션, 패치워크, 엮기 기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⁹⁾

2.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특징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특성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을 지배하는 현상을 이후에 새로이 대두되기 시작한 문학과 예술을 지칭하는 문예적 개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는 1934년 마드리드에서 출간된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 시선집」(1882-1932) (Auto logia de lapoesiaespaniola e hispanoameican)에서 페드리코 드 오니스(Federico de Onis)가 포르테테리니시모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1960년대 초 문학비평 영역에서 미국의 어빙 호우와 해롤드 레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²⁰⁾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란 모더니즘(modernism)에 ‘뒤’나 ‘후(後)’를 뜻하는 포스트(post)라는 접두어를 붙여 만든 말이다. 이는 철학적 흐름에서는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의 진보된 맥락에서 예술관련 분야에서는 1960년대 초 영어권의 대학과 예술계의 중심으로 펼쳐진 운동이며, 일반적으로 ‘예술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불린다. 말 그대로 예술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에 모더니즘과 상반되는 특징을 갖는 작품이나 작가 혹은 취향이나 태도 등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특히 미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는 문학비평을 필두로 건축에서의 이중부호, 미술 분야에서의 알레고리, 음악에서의 반복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각 문화 분야에서 다원화된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20세기 후반 패션계를 강타하면서 대중과 가장 가까운 예술사조로 대두되었다.

서구 전체로 확산되어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서구에 존재하는 하나의 시대정신(Zeit-geist), 인식소(Episteme), 또는 패러다임(Paradime)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²¹⁾ 포스트모더니즘은 제1차 세계대전의 대학살과 제2차 세계대전 그 직후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의한 위기감, 히틀러 나치주의의 절대 권력과 유대인 대량학살, 냉전과 핵공포의 위협에 의한 공포감, 자연환경 파괴

등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현상 속에 처해 있는 불안감과 함께 ‘문화적 전통’의 지위를 누리던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이라는 문예사적 관점과 관련되어 포스트모더니즘이 생성되며 발전되었다. 1960년대의 팝아트, 반문화 그리고 혼합주의에서 1970대의 다원적 정책과 절충양식을 생성시켰다. 이런 절충주의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고급예술, 고상한 취향, 고전주의나 모더니즘 같은 안정된 범주에 대한 개념에 도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²²⁾ 이러한 이론적 기반에 바탕을 두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리해보면 고급과 저급, 불확정성, 역사성, 해체주의, 기술주의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파괴적인 성향을 갖고 문화적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무정부주의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전개 방향은 새로운 장르와 실험적 시도를 추구함으로써 오락, 정치, 예술, 경제, 과학에도 깊은 관련을 갖으며 새로운 문화를 계속해서 제시하였고, 새로운 영감에 목말라하던 패션디자이너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며 새로운 것에 대한 고집, 교환, 변혁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20세기 후반부의 경제적 부의 축적과 매스미디어의 확장, 전자통신의 발달은 급격히 변화하는 패션의 흐름을 대중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양성과 다원성을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다양한 패션 트렌드와 테크닉들이 유행하였으며, 이것은 패션산업의 방향 결정에도 큰 지표가 되었다.²³⁾

2)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는 다원주의, 역사주의, 상대주의가 나타나며 유니섹스 모드와 대중적인 디자인 체계를 주축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억압되었던 주변의 하위문화는 확실성을 거

부하는 정신적 자유가 되었다. 여러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와 스트리트 스타일은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분방한 방식으로 풍부한 감성과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게 했다. 또 ‘해체주의’는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나타난 서구 형이상학의 중심주의와 주체를 해체시키고 억압에서의 해방과 탈 중심화를 이끌며 소외된 자, 여성, 빈민, 주변문화 등을 대두시키고자 하였다. 해체주의 특성이 반영된 복식들은 남성과 여성, 이성과 남성,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연령, 지역 등을 구분하는 이분법을 해체시켜 양자를 모두 인정하고, 기존 복식 규범의 해체를 통해 양면 가치의 공존을 추구한다.

1960년대 후반 포스트모던 시대의 하위문화 스타일은 저항문화로서의 성격이 강한 히피의 시작으로 이후 1970년대로 들어와서 글램(Glam)과 헤드뱅어(Headbangers), 허무주의적, 파괴지향적인 펑크(Punk), 아프리카 이미지의 라스타파리언(Rastafarians)이 출현하였다. 1980년대는 뉴로맨틱스(New Romantics), 투톤(Two-ton), 페티시즘이 외설적인 맥락에서 제도화된 퍼브(Perve), 1990년대는 랩, DJ, 그래피티 아트와 브레이크댄스의 기본요소로 구성된 힙합(Hip Hop), 테크노스타일과 절충된 사이버 펑크(Cyber Punk), 레이버(Raver)등의 다양한 하위문화 스타일들이 창출되었다.²⁴⁾²⁵⁾ 특히 두드러진 1980년대의 특징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앤드로지너스로 간주된다. 자동동체를 의미하는 앤드로지너스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여성복에 나타난 매니쉬(Manish)현상과 짧은 헤어스타일과 록가수들의 여장이나 남장, 메이크업(Make-up)과 자유롭게 남녀의복을 교차시킨 무대복장의 환경에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²⁶⁾ 캐롤라인 에반스(Caroline Evans)와 민나 소르톤(Minna Thorton)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기존질서를 무시하는 반 패션(Anti Fashion) 및 전위적(Avantgarde)인 형태로 가치와 무가치가 쉽게 뒤바뀌고 여성적인 것과 반여성적인 것 역사적인 것과 민속적인 것의 나열 등

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이라 하였다.²⁷⁾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적 복식의 특징은 다양한 문화의 스타일들이 그 스타일간의 경계와 구분이 흐려지게 된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병치에서 오는 스타일의 혼합을 의미하고, 다원적 절충주의에서 대표되는 역사적인 복고성과 민속적인 토속성, 해체주의적 전략을 통한 남녀의 이분법적 페미니즘 요소 등으로 이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응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실체를 밝히고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80년대에는 간문자(1991)²⁸⁾, 나채희(1986)²⁹⁾, 박명희(1991)³⁰⁾는 과거 복식 요소 재해석, 동서양 양식의 절충주의, 역사 전통주의, 복합성과 대립성, 토속성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90년대의 연구자 김민자(1998)³¹⁾는 “의복의 기성복화, 절충주의 스트리트 패션부각, 성정체성 불확정성, 대중문화의 영향”이라고 분류하였고, 이선주(1993)³²⁾, 이주현(1996)³³⁾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복식의 특징으로 다원주의, 에콜로지화와 자연주의, 레트로 등에 대한 관심으로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대에는 임영자·한윤숙(2001)³⁴⁾, 정세희·임영자(2000)³⁵⁾는 탈중심화, 해체주의 특성으로 최혜정(2001)³⁶⁾, 최현숙(2000)³⁷⁾은 페미니즘을 포스트모더니즘 복식의 특성들로 추출하여 그에 따른 개념과 표현 양식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앞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들은 크게 절충주의, 역사적인 레트로, 민속적인 에스닉, 페미니즘 등의 네 가지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복되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4가지 특성에 부합되고, 표현 특성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포스트모더니즘적 복식의 특징은 다양한 문화의 스타일들이 그 스타일간의 경계와 구분이 흐려지게 된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병치에서 오는 스타일의 혼합을 의미하고, 다원적 절충주의에서 대표되는 역사적인 복고성과 민속적인 토속성, 해체주의적 전략을 통한 남녀의 이분법적인 페미니즘적인 요소 등으로 이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응용되고 있다.

(1) 스트리트 룩

포스트모더니즘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해체, 오히려 대중패션(mass fashion)이 오히려 하이패션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특히 하위문화 스타일은 역사성을 무시한 절충주의의 영향 속에서 전개되었는데 핑크 이후 출연한 스트리트 스타일의 절충현상으로 하위문화로서의 포스트모던 시대를 알리는 1980년대 말 핑크라는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고³⁸⁾, 1960년대 후반 저항문화로서의 성격이 강한 히피의 시작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후기에 들어서는 하이패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스트리트 룩의 스타일들이 창출되었다. 히피패션의 주된 모습은 <그림 1>과 같이 낡고 바랜 오래된 중고나 일부 찢어 입은 것으로부터 패치워크와 같은 자수, 페인팅 등의 장식을 더한 개성 있는 청바지를 입었고, <그림 2>와 같이 영국 디자이너 잔드라 로즈(Zandra Rhode)가 찢겨진 옷에 직접 프린트한 소재로 패션화, 일반화시켜 핑크디자이너가 들어간 티셔츠를 도입하였다.

(2) 레트로 룩

1980년대 이전의 역사주의 패션은 과거양식의 패러디로, 양식의 중복성을 뜻하기는 하지만 이미 사용된 양식의 부분 인용이거나 어떤 형식을 차용

한 정도였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과거의 모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과거를 이용하여 더욱 새롭게 발전,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예술분야에서는 ‘역사주의’로서, 패션에서는 ‘복고풍’으로서 유행이 출현하였다. 이는 1970년대 말부터 이국적인 모습과 함께 역사적인 테마를 재해석하였고, 주로 과거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다양한 도입이 이루어졌는데 단순히 역사적 디자인이나 혼합절충주의 디자인과는 차별성을 가진 레트로 룩으로 발전하였다. 역사주의 디자인은 과거의 스타일을 재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레트로 디자인의 목적은 과거 스타일이나 디자인 양식의 재활용이 아니라 추억과 회상이라는 감성의 전달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포스트모더니즘의 레트로 룩은 <그림 3>, <그림 4>와 같이 60년대 복고적 스타일이 엿보이는 디자인으로 히피풍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3) 에스닉 룩

또 하나의 미적 특성은 에스닉 룩(Ethnic Look)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패션에서 두드러진 민족적인 성향은 이질적인 문화들이 서로 접촉했을 때 동질화되거나 융합되는 문화 변용과 연관된다. 이러한 이국 취향적 사고는 문명에 물들지 않은 아프리카의 감각을 상징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표방하였고, 이들의 민속의상이나 장신구, 바티페인팅, 문신 등은 현대 서양 문화양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에스닉 룩’이 후기 산업시대, 정보시대에 적합한 패션의 주체로서 서양 복식문화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여 서양복식의 인위적이며 건축적인 형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흐름과 운명론을 바탕으로 한 동양복식의 행태미나 아프리카의 때 묻지 않은 원시성의 추구에 대한 향수라 하겠다⁴⁰⁾. 이

에 따라 이들의 민속복이나 장식미술 등이 패션디자인의 주요 모티브로 활용되었으며<그림 5>, 90년대 이르러서는 동·서양적 요소가 대등한 위치에서 혼합 절충되는 동양의 정신적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쥘 룩과 함께 20세기 후반의 패션을 지배하였다<그림 6>.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다층적이며 문화의 세계화와 함께 여러 문화의 혼용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4) 페미니즘 룩

포스트모더니즘의 페미니즘 패션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적 전략을 통한 남녀의 이분법을 해체시키는 것으로 주로 양성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앤드로지너스(Androgenous), 젠더리스(Genderless), 유니섹스(Unisex)등이 있고, 고정적인 아름다운 여성신체를 의상을 통해 변형, 왜곡시키거나 신체의 표현방식의 전환을 통해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탈 고정화하는 경향으로 란제리 룩(Lingery look)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복식에서 성·연령·상황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 해체되었고, 20세기에 들어 오면서 진행된 복식의 혁명 중 하나인 성(性)의 혁명을 통해 여성이 남성의 스타일을 수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여성의 가시적 이미지는 해체되었다. 1984년 장 폴 고티에의 앤드로지너스 룩<그림 7>은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남성 복식의 이미지를 수용함으로써 좀 더 남성적 특질을 강하게 드러내 고자 하는 측면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성도 여성적 특질을 차용하고 있다. 또한 존 갈리아노는 2004 S/S 컬렉션에서 속옷을 겉옷 위에 입는 과정을 선보이며 고풍스러우면서도 유혹적인 란제리 룩을 전면으로 내세웠다<그림 8>. 이는 시스루(See-Through)의상과 인체의 에로티시즘을 의상으로 나타내었고, 전통적인 복식개념의 혁명으로 속옷이 겉옷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니트 패션의 포스트모더니즘 특성 분석

본 연구는 컬렉션에 나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에 따른 형태 및 표현기법과 색채경향, 내적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1차적으로 컬렉션에서 니트 패션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2010년 121작품, 2011년 98작품, 2012년 112작품, 총 331작품을 시각자료로 수집하였다. 2차적으로는 앞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스트리트 룩, 레트로 룩, 에스닉 룩, 페미니즘 룩의 네 가지 분석의 틀을 정하여, 수집한 니트 패션의 사진 자료와 대입하여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객관화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하여 니트와 우븐 등 타 소재와의 혼합인 경우 니트가 65%이상의 의상을 선정하였고, 하나의 디자인이 2-3개의 조형요소와 중첩되는 경우는 우선성에 의하여 분류하거나 니트 패션이 애매한 경우와 시각적으로 니트 조직이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니트 패션은 처음에는 보온용, 방한용으로써 실용적인 부분에서 시작되어 점차 각 시대마다 문화현상을 담아내며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20세기 초 현대 패션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마인드의 변화로 기능적이고 편안한 스타일, 유연하고 자유로운 디자인 표현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해지고, 선호도 역시 높아가고 있다. 또한 20세기 후반 예술, 과학, 생활양식 등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니트 패션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장르의 시도와 다양하고, 발전 가능한 가치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니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도출하여, 2009년 이후에 패션에 표현된 니트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룩으로 하위 문화로서의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스트리트 룩과 동·서양의 이미지가 접목된 절충주의적 레트로 룩,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한 수공예 감각의 에스닉 룩과 남성성과 여성성이 절충된 성별의 구별이 없으면서 니트의 특성상 몸에 붙는 곡선미의 페미니즘 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형태 및 표현 기법과 색상, 니트의 특징, 내적 의미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4가지 분석 틀과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2009년 이후 컬렉션에 나타난 니트 디자인의 포스트모더니즘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스타일로 스트리트 룩은 저항문화로서의 성격이 강한 히피의 시작으로 허무주의적, 파괴지향적인 펑크, 그라피티 아트와 랩이 구성된 힙합 등의 하위문화 스타일로서 발전된 룩으로 니트 패션에서 역사적 요소의 도입과 절충, 대중 문화적 현상과 현실, 초현실적인 패션 등으로 역설적이거나 새롭고 전위적인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실용성을 강조한 미래적인 니트 패션으로 제시되며,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과 무채색과 원색과의 액센트 배색이 두드러졌다. 이에 나타난 니트의 특징은 기능성과 실용성을 최대한 살린 드레이프성이 좋은 실루엣으로 가디건, 자켓, 오버사이즈 상의 아이템 등에 많이 나타났다. 비구축적인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디자인 등으로 절개선 윤곽선에 수공예적 감각이 가미된 굵은 스티치나 이질적인 소재의 버클 등을 원포인트로 사용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며, 현대적인 세련미로 미래적인 니트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둘째, 레트로 룩은 과거의 현존을 보여주는 혼합방식과 추억과 회상이라는 감성의 전달이 주된 목적으로 옛 것을 통하여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다원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니트 패션에서는 자유로

<표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분석

표현특징	특성	스트리트 룩	레트로 룩	에스닉 룩	페미니즘 룩
개념적 특징		하위문화 스타일, 대중주의 스타일로 하이패션에 대한 절충주의적 대안,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 해체	시공간적 다원적인 절충주의, 역사주의, 복고풍으로서 새로운 시도 표현	문화의 세계화와 지역주의 동시 지향, 다원적 문화 현상	해체주의적 남녀이분법의 해체, 여성성과 여성이미지의 변화표현
표현양식		전통적 하위 패션의 특징인 그래피티, 캐리커, 만화같은 표현, 유희적 이미지, 미완성의 하위개념을 하이패션에 도입	복고적인 특성으로 과거 유행했던 프린트, 동서양 국가간 전통복식과 민속복식의 절충주의	과거 원시적인 특성으로 천연재료 감각의 수공예적인기법, 전통복식의 실루엣, 소재와 문양, 프린트의 모티브	양성애적 감각-여성의 남성화, 남성의 여성스런 색상과 문양의 혼합 및 차용, 상반된 이미지 아이템의 해체 및 혼합
패션 스타일		히피, 핑크, 힙합 네오핑크스타일	레트로, 퓨전 스타일	에스닉, 프리미티브, 젠, 오리엔탈스타일	앤드로지너스, 젠더리스, 유니섹스, 란제리스타일
대표 이미지 룩		 <p><그림 1> 1971년 런던의 히피룩 (출처: 「복식미학강의2」, 2004, p.64)</p>	 <p><그림 3> 2005 S/S Anna Sui의 레트로룩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p>	 <p><그림 5> 1976년 에스닉 룩 (출처: 「20세기 패션」, 2000, p.243)</p>	 <p><그림 7> 1984년 Jean Paul Gaultier의 앤드로지너스룩 (출처: http://navercast.naver.com)</p>
		 <p><그림 2> 1977년 Zandra Rhodes의 하이패션 핑크T (출처: 「20세기 패션」, 2000, p.248)</p>	 <p><그림 4> 2002 F/W Isabel Marant의 퓨전룩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p>	 <p><그림 6> 1998년 F/W Issey Miyake의 젠룩 (출처: 「패션문화」, 2002, p.82)</p>	 <p><그림 8> 2004년 John Galliano의 란제리룩 (출처: http://navercast.naver.com)</p>

운 캐주얼과 빈티지 스타일 믹스, 융합, 복고적인 패턴의 보헤미안스타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로의 회귀를 자유롭고 창조적인 룩으로 재해석한다는 내적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소 빛바랜 듯한 톤의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니트의 특징에서 전통풍 감성의 두껍고 거칠게 짠 듯한 니트웨어가 주를 이루며 F/W시즌에 맞게 다양한 퍼 트리밍 장식과 이국적인 꽃 패턴 등의 자수

기법, 아플리케 등 수공예적 기법이 혼합되었다. 주로 베스트와 셔츠 카라 강조 등 부분적으로 표현을 통해 개성 있는 믹스 앤 매치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셋째,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한 수공예 감각의 에스닉 룩은 현대 니트 패션에서 과거로의 회귀를 자유롭고 창조적인 룩으로 재해석하며 민속풍의 풍성한 볼륨감, 원시적인 자연의 형태를 모티브로

<표 2> 니트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분석

분류	작품		형태 및 표현기법	색채경향	니트특징	내적의미
스트리트 룩	 <그림 9>	 <그림 10>	동서양의 무드가 접목되어 부분적인 스타일링 요소로 제시, 구성과 해체를 통해 현대적인 스타일 제시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과 N계열의 W, Gray 색상이 원색과 액센트 배색	실용성, 기능성 강조된 드레이프성이 좋은 아방가르드한 디자인, 실루엣 윤곽선에 굵은 스티치나 버클장식으로 원포인트	실용성이 강조된 새로운 미래적인 니트 디자인 제안
	2012 f/w Phillip Lim	2011 f/w Balenciaga				
레트로 룩	 <그림 11>	 <그림 12>	자유로운 캐주얼과 빈티지 스타일 믹스, 융합, 복고적인 패턴의 보헤미안 스타일	다소 바랜듯하고 워싱된 색조의 Olive, Brown, 회색기미의 Green, Wine	자카드, 패치워크기법 활용, 두겹고 다양한 직물과 혼합된 거칠게 짠 듯한 수공예적 니트 소재,	과거와 현재를 혼합, 과거로의 회귀를 자유롭고 창조적인 룩으로 재해석
	2011f/w Phillip Lim	2011f/w Anna Sui				
에스닉 룩	 <그림 13>	 <그림 14>	민속품의 풍성한 볼륨감, 원시적인 자연의 형태를 모티브로 한 패턴, 수공예 감각	원시적인 깊고 풍부한 색조의 Khaki, Deep blue, 오래된 듯한 beige, Gold yellow, 강하고 자극적인 Red, Violet	니트와 다양한 소재 혼합으로 입체감 부여, 콜라주와 패치워크, 모피 슬장식으로 수공예적 기법	자연주의를 기본으로 한 토속적인 다양한 문화가 혼합, 절충된 멀티 컬처 룩, 공예지향성
	2011f/w Etro	2011f/w Etro				
페미니즘 룩	 <그림 15>	 <그림 16>	절제된 심플한 디자인, 곡선미가 드러나는 드레이프성	W, Skin색상, 옅은 Blue색상 등 단색위주와 스프라이트, 다양한 패턴 등으로 톤온톤, 액센트 배색	복잡한 편성기법보다는 우분과 같이 단순한 조직편성으로 바디에 피트되는 라인 다수, 면분할이 강하게 배색된 스타일 다수	남녀의 절충, 니트의 장점인 관능미, 인체미가 드러나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
	2012f/w Cacharel	2010f/w Sonia Rykie				

한 패턴을 모티브로 수공예 감각을 돋보이면서 원시성이나 인간본능에 대한 관심을 내포하고 있다. 색상은 Khaki, Deep blue, Gold yellow, Red, Violet 등의 강하고 자극적인 배색으로 활기차고 원시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에 나타난 니트의 특징은 니트와 다양한 이질적인 소재들이 니팅과 꼴라주가 혼합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섬세하게 또는 거칠게 표현되어 니트 패브릭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이미지로 입체감과 볼륨감을 부여하여 더욱 풍성한 이미지를 표현되었다. 니트 위에 비딩을 하거나, 꼴라주기법, 패치워크, 술장식은 전체적으로 부풀리거나 과장시키지 않은 부분적인 섬세한 디테일로 훨씬 현대적인 감각의 니트 패션의 에스닉 룩으로 재해석하여 표현 되었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 룩은 니트 패션의 유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몸에 붙는 곡선미는 신체를 움직임의 주체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능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스럽고, 은유적이며 관능적이다. 이는 절제된 심플한 디자인, 곡선미가 드러나는 드레이프성의 니트 패션으로 W, Skin색상의 단색위주와 스프라이트, 다양한 패턴 등으로 톤온톤, 액센트 배색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에 나타난 니트의 특징으로는 바다에 피트되는 라인이 주를 이루며, 복잡한 편성기법보다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조직이 탄탄하게 편직되어 있어 우븐과 같이 재단되어 만들어진 옷의 맵시를 가진다. 또한, 과장된 장식이 배제된 원피스, 점프수트 등 클래식한 기본 일체형 니트 아이템들이 많이 등장하고, 스트라이프의 면 분할이 강하게 배색되어지거나 주름장식, 기하학적인 문양과 레이스 조직이 전체적인 무드로 모던한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니트 패션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지만 최근 다양한 소재 표현과 개발이 가능함으로 기능적인 단점이 보완되고 지속적인 연구가 병행된다면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으로서 패션 트렌트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 니트 패션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될 뿐만 아니라 대담한 디자인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니트 패션의 대중화 뿐만 아니라 고급화까지를 양산해내며 F/W뿐만 아니라 모든 시즌에 걸쳐 관심 받는 소재와 이미지로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정립된 니트 패션의 전성기를 이루는 계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 해본다.

참고문헌

- 1) 김석근 (1993). 메리야스 공학, 서울: 운문당, p.10.
- 2)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1991).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p.71.
- 3)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9). 21세기 한국섬유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조사 연구보고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p.99.
- 4) 서울 경인 스웨터 공업 협동조합 (2001). 한 울, 9(10), p.32.
- 5) 최혜주 (2002). 해외 니트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패션과 니트, 7(1), p.10.
- 6) 이해영 (2002). 현대 미술 의상에 표현된 니트 기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2.
- 7) 최경희 (2005). 현대 여성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양식에 관한 연구-1995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8.
- 8) 채금석 (1999). 패션디자인 실무, 서울: 경춘사, pp.55-66.
- 9) 허준 (1996). 파리모드 2000년, 서울: 유림문화사, p.182.
- 10) 정삼호 (2008). 현대패션모드, 과주: 교문사, p.151.
- 11) 최혜주. 앞의 책, p.12.
- 12) 박문희 (2009). 현대 니트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 -2000년~2008년 여성컬렉션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3.
- 13) 위의 책, p.52.
- 14) 손희정, 이순홍 (1991). 니트웨어의 발달과정과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복식, 16, pp.146-171.
- 15) 이해영. 앞의 책, p.84.
- 16) 이순홍 (1997). 편물, 서울: 문교부, p.3.
- 17) 최혜주 (2008). 한국 니트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0(3), pp.64-70.
- 18) 문은정 (2009). 현대 니트 디자인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 19) 박문희. 앞의 책, p.77.

- 20) 서성록 (1989). 포스트모던미술과 비평, 서울: 미술공론사, p.5.
- 21) M. 칼리니스쿠 (1998).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옥 외 옮김, 서울: 시각과 언어, pp.333-334.
- 22) 신은주, 장동립 (2002). 복식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1), p.129.
- 23) 조정미 (2003). 포스트모더니즘이 20세기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 11(6), p.926.
- 24) 임은희, 김민자 (2003). 199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에 관한 연구, 53(3), pp.13-31.
- 25) 정미진 외 (2002). 락(Rock) 음악의 발전에 따른 스트리트 스타일의 발생과 변천, 52(5), pp.173-186.
- 26) 이정후 (1990). 현대여성복식에 나타난 Anti Fashion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0.
- 27) Caroline Evans & Minna Thorton (1989). Woman & Fashion, New York: Quarter book, p.59-80.
- 28) 간문자 (1991).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하여,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12(2), pp.681-697.
- 29) 나채희 (1986). New Wave Fashion=Study on the new Wave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4-97.
- 30) 박명희 (1991).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5.
- 31)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복식, 38, pp.369-392.
- 32) 이선주 (1993). Post-modernism의 패션경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2.
- 33) 이주현 (1996). 포스트모더니즘과 텍스타일디자인을 위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pp.183-196.
- 34) 임영자, 한윤숙 (2001). 현대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 복식, 51(5), pp.113-134.
- 35) 정세희 (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3.
- 36) 최혜정, 임영자 (2001).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1(2), pp.149-467.
- 37)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00-120.
- 38) David Muggleton (2000). Inside subculture: The postmodern meaning of style, New York: Oxford, pp.131-134.
- 39) 박혜원, 이미숙 (2002). 레트로 패션의 특성과 문화산업적 의미 연구, 복식, 52(3), pp.171-187.
- 40) 박명희. 앞의 책, pp.42-43.

A Study on the Postmodernism Characteristics - Expressed through Knit Design in Collections Since 2010 -

Kim, So hyu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four types of styles that represent postmodernism, a turning point in the late 20th century that has been frequently discussed in the modern fashion world - street look, feminine look, retro look, and ethnic look - to lear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shown in knitted clothing since 2010. The objective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knitted clothing in the future. First, street look developed from subcultures. Here, knitted clothing is practical and futuristic, and uses soft pastel colors and achromatic colors with primary colors. Second, the retro look mainly focuses on combining past and present and delivering emotional concepts such as memory and reminiscence. Knitted clothing in this category includes the mix of casual and vintage, retro patterns and bohemian style. Different shades of colors that look faded are used to express these concepts. Third, the ethnic look that is based on naturalism is interested in aboriginality and human instinct, and uses strong colors and unique arrangements of colors to express active and primitive feelings. Lastly, the feminine look is a style that can maximize the flexibility of knitted clothing. It is functional, metaphorical, and sensual. Knits with drapes emphasize body curves and use one color, stripes, or patterns.

Key words: knit fashion, postmodernism, street look, retro look, ethnic look, feminine look